

## DIT를 사용한 간호학생의 도덕판단력 고찰

이미애\*, 김익중\*\*, 홍성훈\*\*\*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현상을 기술·설명·예측하는 것과 관련되는 경험적(empirics) 측면, 간호의 목적, 책임, 가치판단과 관련되는 윤리적(ethics) 측면, 자아인식이나 상호작용 능력과 관련되는 개인적(personal) 측면, 공감형성이나 현실인식 및 이해와 관련되는 미학적(aesthetics) 측면으로 형성되는데<sup>1)</sup> 여기서 윤리적 측면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실천적 특성이 강하여 간호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판단의 근거가 되거나 타인의 행위나 의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가치체계와 관련된다.

이런 의미에서 간호교육은 간호학생으로 하여금 간호 전문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의료요구와 가치관의 변화 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뿐 아니라 간호사가 되어 업무를 수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개인적, 미학적 측면과 관련된 진실·정직·의무·책임·성실 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야 한다.<sup>2)</sup>

그런데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가 직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거나 윤리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로 간호사들이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간호사들이 개인적 또는 윤리적 문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학적·윤리적 지식이나 신념, 사고방식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sup>3-5)</sup>

도덕이나 윤리성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현장에서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적절하게 의사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 여주대학 보육학과

교신저자 : 이미애, 경북 경주시 석장동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054-770-2620, 011-505-2651, juliet@dongguk.ac.kr

1) 한성숙, 엄영란, 안성희, 차중호, 차성호, 권복규, 구인희, 임종식, 구명모, 간호윤리학 2판. 서울 :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4 : 17

2) Fry ST. Teaching ethics in nursing curricula.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989 ; 24(2) : 485-497

3) Davis AJ. The sources of a practice code of ethics for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1 ; 16 : 1358-1362

4) Erlen JA & Sereika SM. Critical care nurses, ethical decision-making and str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7 ; 26(5) : 953-961

5) Padgett SM. Dilemmas of caring in a corporate context : a critical of nursing case management. Advanced in Nursing Science 1998 ; 20(4) : 1-12

결정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간호교육자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1991년 미국 간호연맹(NLN)이 간호의 윤리적 측면을 학사 교육과정 프로그램에서 다루도록 한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는 것으로,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간호사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다룰 능력이 이들에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윤리 수준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낮게 평가받고 있는데<sup>6)</sup>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독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료 전문인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sup>7)</sup> 이렇게 낮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윤리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덕·윤리교육의 강화, 전문직 단체의 자율규제 역량의 증대, 소비자·시민운동의 활성화 등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가장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교육'이다.<sup>8)</sup>

그러나 현행 국내 대학들의 전문교육 과정에서 도덕·윤리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것은 간호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sup>9)</sup> 전문직 교육 중에서도 특히 간호교육은 간호학문에 대한 지적 역량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인간을 기르는 전인교육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전문직 교육이 실시되는 대학재학 시에 획득되어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간호교육 과정 대부분은 피교육자의 품성이나 인격과 관련되는 교육이 다차원적이고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sup>9)</sup> 오직 날로 급증하는 의학 및 간호학적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데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실무현장에서 윤리적이거나 인간적으로 적절히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교수나 학생 각각의 개인적 관심이나 각성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간호학생들은 현장의 다양한 윤리적 갈등이나 딜레마를 조정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0)</sup>

우리나 도덕적 판단은 선한 삶이나 도덕적 의무, 바람직한 가치 규범을 좋아하고 실행하려는 감정과 욕구에 기초하고 또 이에 헌신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성발달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학교육이 지적 성숙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인간을 기르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함에 따라 대학교육의 교육효과를 판단하는 전인교육 효과성 연구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sup>11)</sup> 이는 대학생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문화·사회적, 지적, 학문적 경험을 갖게 하여 그들의 인격적 성숙과 함께 도덕 판단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sup>12,13)</sup>

이 같은 결과는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는 객관적 척도

6) 부정방지 대책 위원회. 신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국가사정 활동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1993

7) 서울시사회, 의료이용 현대 및 의료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보고서. 1994 : 17

8) 홍성훈.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의과대학의 도덕 판단력·민감성·행동선택을 중심으로 -.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9) 이원희, 한성숙, 김용순, 김분한, 지성애, 엄영란, 안성희. 한국간호교육기관의 간호윤리 교육현황 - 3년제·4년제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 의료·윤리·교육 2001 ; 4(1) : 1-14

10) Cameron ME. Value be do : guidelines for resolving ethical conflict. Journal of Nursing Law 2000 ; 6 : 15-24

11) 문미희. 대학교육과 도덕판단력 발달. 교육연구 1996 ; 12 : 187-205

12) Davis ML & Robbins 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bjective indicators of moral development.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78 ; 2(3) : 391-403

13) McNeel SP.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ed by Rest JR. College teaching student moral development.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1994 : 27-48

인 DIT(Defining Issue Test)를 개발한 Rest<sup>14)</sup>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임상수행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의료 전문직 교육의 교육성과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Sheehan<sup>15)</sup>은 소아과 수련의의 도덕 판단력(DIT 점수)이 그들의 임상수행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Duckett와 Ryden<sup>16)</sup>은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DIT 점수)이 그들의 임상수행능력을 잘 예측해줄 수 있는 좋은 예측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은 그들이 미래에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는 것은 앞으로 그들의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또 현재 간호교육에 의해 그들의 도덕 판단력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도덕 판단력 측정척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이미 도구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입증된 DIT를 사용하여 1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그들의 도덕 판단력에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간호학생의 학년 별 도덕 판단력 수준을 확인하여 연구대학 간호교육 과정의 전인교육에 대한 효과성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할 횡단적 조사연구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 2) 간호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도덕 판단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 3) 간호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도덕 판단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5년 경상북도 K시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 55명, 2학년 41명, 3학년 56명, 4학년 48명인 총 200명에게 도덕 판단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도덕판단 검사문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M' 지수가 8점 이상인 응답자를 제외시킨 1학년 47명, 2학년 33명, 3학년 41명, 4학년 33명인 총 154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 2. 연구도구

도덕 판단력 검사(DIT, Defining Issue Test)는 Rest가 Kohlberg의 주관식 개인면담 방식의 도덕성 발달검사를 객관식 검사로 변형 제작한 것으로, 집단검사가 가능한 방법이다.

Rest의 DIT는 6개의 도덕적 딜레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용린<sup>17)</sup>이 번역한 간편 한국형 DIT를 사용하였다. 이 간편 한국형 DIT는 Rest의 여섯 개 이야기 중 '남편의 고민(Heinz and the drug)', '탈옥수(Escaped prisoner)', '의사와 환자(The doctor's dilemma)'라는 세 가지 이야기만을 다룬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

14) Rest JR, Moral Development :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 Praeger, 1986

15) Sheehan TJ.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reasoning and clinical performance. Proceeding of the 17th Annual Conference on Research in Medical Education 1978 ; 17 : 444-445

16) Duckett LJ & Ryden MS, Education for ethical nursing practice. Rest JR & Naravez D, eds.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1993 : 51-69

17) 문용린. 인지발달론의 관점에서 본 도덕성 발달연구의 문제와 전망. 교육이론 1986 ; 1(1) : 55-83

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것들이다. 여섯 가지 모두를 사용한 경우와 세 가지 갈등만 사용한 간편형 DIT를 비교한 결과 p(%)지수의 상관관계가 .93으로 나타나 도덕성 발달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간편형 DIT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8)</sup>

DIT 간편형은 세 가지 갈등 상황과 그에 따른 12개의 질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점결과는 12개 문항 중 피험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4개 문항의 순위를 바탕으로 산출한 p(%)지수로 나타나는데, p(%)지수는 각 피험자의 인습 이후 수준의 도덕판단 단계(5, 6 단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은 피험자는 인습 이후 수준의 도덕적 사고구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p(%)지수는 인지발달론적 도덕성 연구분야에서 도덕성의 발달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도덕 판단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p(%)지수를 사용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ver 12.0)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DIT의 M지수와 p지수는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학년에 따른 도덕 판단력(p지수)의 차이여부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차이가 나타난 것은 Duncan-test로 사후검정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150명(97.4%)이 여성이고 오직 4명(2.6%)만이 남성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75명(48.7%), 불교가 53명(34.4%), 기독교가 17명(11.0%),

<표 1> The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154)

| Item     | Category     | Frequency | Percentage(%) |
|----------|--------------|-----------|---------------|
| Sex      | Female       | 150       | 97.4          |
|          | Male         | 4         | 2.6           |
| Religion | Christian    | 17        | 11.0          |
|          | Buddhist     | 53        | 34.4          |
|          | Catholic     | 9         | 5.8           |
|          | Religionless | 75        | 48.7          |
| Age      | 18 years     | 22        | 14.3          |
|          | 19 years     | 37        | 24.0          |
|          | 20 years     | 21        | 13.6          |
|          | 21 years     | 36        | 23.4          |
|          | 22 years     | 25        | 16.2          |
|          | 23 years ≤   | 13        | 8.5           |
| Grade    | First grade  | 47        | 30.6          |
|          | Second grade | 33        | 21.4          |
|          | Third grade  | 41        | 26.6          |
|          | Fourth grade | 33        | 21.4          |

18) 오갑례. 부모양육 태도와 성별에 따른 도덕성 발달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30-35

|  |                                 |    |      |
|--|---------------------------------|----|------|
| Number of sibling<br>(including the subject)               | 1 person                        | 6  | 3.9  |
|  | 2 persons                       | 89 | 57.8 |
|  | 3 persons                       | 53 | 34.5 |
|  | 4 persons ≤                     | 6  | 3.8  |
| Family form in<br>growth period<br>(including the subject) | Parents + 1 child               | 3  | 1.9  |
|  | Parents + 2 children            | 80 | 51.9 |
|  | Parents + 3 children            | 50 | 32.5 |
|  | Grandparents +parents +children | 21 | 13.7 |
| Family's income<br>/month(average)                         | ≥ 2,000,000 won                 | 24 | 15.6 |
|  | 2,010,000-3,000,000 won         | 56 | 36.4 |
|  | 3,010,000-4,000,000 won         | 43 | 27.9 |
|  | 4,010,000 won ≤                 | 31 | 20.1 |

천주교가 9명(5.8%)이었다. 연령은 19세가 37명(24.0%)으로 가장 많고 23세 이상이 13명으로 적었으나 나머지 연령은 20~30명씩 비교적 고루 분포하였다. 학년은 1학년이 47명(30.5%), 2학년이 33명(21.4%), 3학년이 41명(26.6%), 4학년이 33명(21.4%)이었으며 가족형태는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의 수가 2명인 경우가 89명(57.8%)로 가장 많았고 3인인 경우가 53명(34.4%)으로 2~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전체의 92.3%를 차지하였고 성장기의 가족형태는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의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4명의 핵가족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이 80명(51.9%), 3명 이상의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핵가족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이 50명(32.5%)으로 2~3명의 자녀를 가진 핵가족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이 84.4%를 차지하였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01만~400만원 사이의 가정이 99명(64.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만원 이하의 가정도 24명(15.6%), 401만원 이상의 가정도 31명(20.1%)이 있었다.

## 2.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 수준

연구대상자인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The results of the subjects' DIT

(n = 154)

|             | Minimum | Maximum | Mean  | ±SD    |
|-------------|---------|---------|-------|--------|
| p(%) scores | 13.30   | 80.00   | 45.68 | ±13.65 |

연구대상자인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인 p(%)지수의 범위는 최소 13.30 ~ 최대 80.00으로 매우 넓게 나왔으며 평균은 45.68, 표준편차는 13.65로 나타났다.

## 3. 간호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도덕 판단력의 차이

연구대상자인 간호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도덕 판단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t-test, One-way ANOVA 및 Duncan-test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도덕 판단력의 평균값이 여자는 45.85(±13.63), 남성은 39.18(±14.49)로 여자가 더 높게 나왔으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966, p=.336). 종교는 기독교인 44.12(±14.75), 불교인 45.63(±11.89), 천주교인 32.22(±12.83), 종교가 없는 무교인인 경우가 47.69(±13.94)로 나왔으며 이들 집단

〈표 3〉 The DIT scores by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154)

| Item   | Category                        | P(%) scores |       |       |        | F     | p                   |
|--|---------------------------------|-------------|-------|-------|--------|-------|---------------------|
|  |                                 | Min         | Max   | Mean  | ±SD    |       |                     |
| Sex  | Female                          | 13.30       | 80.00 | 45.85 | ±13.63 | .966  | .336                |
|  | Male                            | 20.00       | 53.30 | 39.18 | ±14.49 |       |                     |
| Religion   | Christian(a)                    | 13.30       | 70.00 | 44.12 | ±14.75 | 3.720 | .013*<br>c <a, b, d |
|  | Buddhist(b)                     | 20.00       | 80.00 | 45.63 | ±11.89 |       |                     |
|  | Catholic(c)                     | 13.30       | 46.70 | 32.22 | ±12.83 |       |                     |
|  | Religionless(d)                 | 13.31       | 80.00 | 45.68 | ±13.65 |       |                     |
| Age  | 18 years                        | 20.00       | 66.70 | 46.66 | ±13.57 | .597  | .702                |
|  | 19 years                        | 13.30       | 73.30 | 44.24 | ±14.52 |       |                     |
|  | 20 years                        | 23.30       | 73.30 | 48.41 | ±13.78 |       |                     |
|  | 21 years                        | 13.30       | 80.00 | 47.35 | ±15.03 |       |                     |
|  | 22 years                        | 23.30       | 63.30 | 43.87 | ±10.35 |       |                     |
|  | 23 years ≤                      | 20.00       | 63.30 | 42.57 | ±13.56 |       |                     |
| Number of sibling<br>(including the subject)               | 1 person                        | 40.00       | 53.30 | 47.75 | ±6.20  | .076  | .973                |
|  | 2 persons                       | 13.30       | 80.00 | 45.33 | ±14.88 |       |                     |
|  | 3 persons                       | 20.00       | 73.30 | 46.04 | ±12.71 |       |                     |
|  | 4 persons ≤                     | 33.30       | 56.70 | 45.55 | ±8.62  |       |                     |
| Family form in<br>growth period<br>(including the subject) | Parents +1 child                | 40.00       | 53.30 | 45.53 | ±6.93  | .014  | .998                |
|  | Parents +2 children             | 13.30       | 80.00 | 45.48 | ±14.78 |       |                     |
|  | Parents +3 children             | 20.00       | 73.30 | 45.87 | ±13.07 |       |                     |
|  | Grandparents +parents +children | 23.30       | 76.70 | 46.03 | ±11.77 |       |                     |
| Family's income<br>/month(average)                         | ≥ 2,000,000 won                 | 26.70       | 63.30 | 46.11 | ±10.74 | .763  | .517                |
|  | 2,010,000-3,000,000 won         | 13.30       | 80.00 | 45.74 | ±14.46 |       |                     |
|  | 3,010,000-4,000,000 won         | 20.00       | 73.30 | 47.52 | ±12.96 |       |                     |
|  | 4,010,000 won ≤                 | 20.00       | 76.70 | 42.68 | ±15.12 |       |                     |

\* p < .05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천주교인이 무교, 불교, 기독교인들보다 도덕 판단력 지수가 의미 있게 낮았다(F=3.720, p=.013). 연령은 20세 학생들의 평균값이 48.41(±13.78)로 가장 높았고 23세 이상의 학생들이 42.57(±13.56)로 가장 낮았으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597, p=.702). 형제?자매 수(본인 포함)에 있어서도 독자인 경우가 47.75(±6.20)로 가장 높았고 2명인 경우가 45.33(±14.88)으로 가장

낮았으나 이들 집단 간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76, p=.973). 성장기의 가족형태(본인 포함)는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같이 사는 대가족 형태의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46.03(±11.77)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 와 2명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가 45.48(±14.78)로 가장 낮았으나 이 역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014, p=.998).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301만~400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가 47.52(±12.96)로 가장 높았고 401만원의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경우가 42.68(±15.12)로 가장 낮았으나 이 역시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 .763, p= .517). 결론적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도덕 판단력(p지수)은 종교를 제외하고는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 4. 학년별 도덕 판단력의 차이

연구대상자인 간호학생들의 학년별 도덕 판단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The DIT scores by subjects' grade**  
(n = 154)

| Category  | P(%) score |       |       |        | F     | p    |
|-----------|------------|-------|-------|--------|-------|------|
|           | Min        | Max   | Mean  | ±SD    |       |      |
| Freshman  | 13.30      | 73.30 | 45.82 | ±14.37 | 1.153 | .330 |
| Sophomore | 13.30      | 76.70 | 45.65 | ±15.06 |       |      |
| Junior    | 13.30      | 80.00 | 48.25 | ±13.66 |       |      |
| Senior    | 23.30      | 63.30 | 42.32 | ±10.66 |       |      |

연구대상자들의 학년별 도덕 판단력이 차이를 확인한 결과 3학년이 48.25(±13.66)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이 42.32(±10.66)로 가장 낮았으나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153, p=.330).

## IV. 논의

본 연구대상자들의 도덕 판단력(p지수)은 평균 45.68로, 의과대학생 303명을 상대로 하여 DIT 검사를 실시한 홍성훈<sup>19)</sup>의 46.8, 대학 2학년생 3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문용린<sup>20)</sup>의 44.97, 58명의 대학생을 검사한 원현주<sup>21)</sup>의 45.99, 미국 대학생의 평균 수치라고 보고한 42.3과는 비슷하게 나타났고<sup>22)</sup>, 국내 90명의 대학생을 검사한 이정희<sup>23)</sup>의 49.91과 미국 의과대학생의 평균 지수로 보고된<sup>24)</sup> 50.2 보다는 다소 낮게 나왔으나 이들 연구의 표본 수가 다양하여 이러한 차이가 의미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들의 p 지수 범위가 13.30 ~ 80.00으로 상당히 넓은에 따라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를 의미 있는 차이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도덕 판단력에서 여자 45.85(±13.63), 남자 39.18(±14.40)로 여자가 높게 나와 남·여 고등학생간의 성별에 따른 도덕 판단력을 살펴 본 오갑례<sup>25)</sup>의 연구결과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덕 판단력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오갑례의 연구에서는 성별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본 연구에 참가한 남학생의 수가 너무 적어(4명) 이들이 우리나라 남자 간호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무리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 판단력이 높게 나온 본 연구결과는 Thoma<sup>26)</sup>가 56개 연구를 종합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도덕수준을 가지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것과는 일치하나, 도덕발달이론을 주창한 Kohlberg<sup>27)</sup>가 남성이 여성보다

- 19) 홍성훈.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 의과대학의 도덕 판단력 · 민감성 · 행동선택을 중심으로 -.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 20) 문용린.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진단을 위한 연구. 1989년도 교육부 지원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1994
- 21) 원현주. 도덕적 자아와 도덕 행동 선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 22) Rest JR, Davison ML, Robbins S. Age trends in judging moral issues : A review of cross-sectional, longitudinal, and sequential studies of the Defining Issues Test. Child Development 1978; 49 : 263-279
- 23) 이정희. 대학생들의 도덕판단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24) 문용린.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진단을 위한 연구. 1989년도 교육부 지원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1989
- 25) 오갑례. 부모양육 태도와 성별에 따른 도덕성 발달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30-35
- 26) Thoma SJ. Estim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comprehension and preference : A critical review of Kohlbergian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986 ; 97(2) : 202-232
- 27) Kohlberg. Essay on Moral Development Vol 2. :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 Harper & Row, 1984

도덕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므로 성별에 따른 도덕 판단력의 차이는 좀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확실한 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종교에 의한 차이를 보면 종교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F=3.720, p=.013$ ), 천주교인들이 무교나 불교, 기독교인들보다 도덕 판단력 지수가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문용린<sup>28)</sup>의 연구결과인 보수주의적인 종교집단과 자유주의적인 신학 및 사회정책을 가진 종교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나 문영삼<sup>29)</sup>의 연구결과인 종교 유무별 도덕 판단력 지수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DIT를 개발한 Rest는 종교와 DIT 점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하였으므로 종교와 도덕 판단력간의 관계 역시 좀더 많은 추후연구를 통하여 그 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천주교인의 수가 9명에 불과하여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연령에 의한 차이를 보면 20세 연령집단의 평균이 48.41( $\pm 13.78$ )로 가장 높았고 23세 이상 연령집단의 평균이 42.57( $\pm 13.56$ )로 가장 낮았으나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원래 성인의 도덕 판단력은 연령보다는 정규교육 과정수준과 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sup>30)</sup>, 문미희<sup>31)</sup>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은 연령보다는 학년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생의 도덕 판단력은 연령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형제·자매 수에 있어서는 본인이 독자인 경우가

47.75( $\pm 6.20$ )로 가장 높게 나왔고 2인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45.33( $\pm 14.88$ )으로 가장 낮았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성장 시 가족형태에서 조부모를 포함하여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 46.03( $\pm 11.77$ )으로 가장 높았고 2명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핵가족이 45.48( $\pm 14.78$ )로 가장 낮았으나 이 역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록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3세대 이상의 가족형태에서 성장한 학생의 도덕 판단력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참여와 도덕 판단력간의 관계를 연구한 Keasye<sup>32)</sup>의 연구에서 사회적 참여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덕 판단력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형제·자매의 수나 가족형태만으로 성장 시 그들의 사회적 참여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형제·자매의 수가 많거나 같이 사는 가족의 수나 세대수가 많다면 가족 내의 인간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본 연구결과는 Keasye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성장 시의 가족 수 또는 가족 형태와 도덕 판단력과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규명하기에 위해서는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301~400만원 사이의 중류가정의 평균이 47.52( $\pm 12.96$ )로 가장 높았고 401만원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고소득 가정의 평균이 42.68( $\pm 15.12$ )로 가장 낮았으나 이 역시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비록 연구대상자 가정의 월 소득에는 차이가 있을 지언정 연구대상자 모두가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대

28) 문용린.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진단을 위한 연구. 교육부 지원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1989

29) 문영삼. 고등학교 학생의 도덕성 발달수준과 문제정의 검사에 의한 측정치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 1988

30) Rest JR, Davison ML & Robbins S. Age trends in judging moral issues : a review of cross-sectional, longitudinal, and sequential studies of the Defining Issues Test. Child Development 1978 ; 49 : 263-279

31) 문미희. 대학교육과 도덕판단력 발달. 교육연구 1996 ; 12 : 187-205

32) Keasye CB. Social participation as a factor in the moral development of preadolescents. Development Psychology 1971 ; 5 : 216-220



상자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그들의 도덕 판단력에 유의한 차이를 낼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학년별 도덕 판단력에 있어서도 학년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McNeel<sup>33)</sup>이 5개 대학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간의 종단적 연구결과, 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도덕 판단력이 성장하였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대학 간호교육 과정의 전인교육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McNeel의 연구에서도 1개 대학에서는 학년이 증가하여도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이 성장하지 않았고 또 국내 의과대학생을 상대로 한 홍성훈<sup>34)</sup>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의 학년과 도덕 판단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전인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 성과변인으로 도덕 판단력을 측정한 Pascarell과 Terenzini<sup>35)</sup>은 학년과 도덕 판단력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년을 통제하면 대학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이 달랐다고 하면서 비교적 보수적인 지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3학년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이 48.25(±13.65)로 가장 높고 4학년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이 42.32(±10.66)로 가장 낮았으며 이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연구대학 간호학생들이 4년 동안 간호교육을 받으면서 도덕 판단력이 의미있게 발달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대학 간호교육 과정을 살펴보니,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이수해야 하는 140

학점 중, 그들의 윤리성이나 도덕성 또는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양이나 전공과정의 교과목은 30학점 정도이고 나머지 110학점 정도는 과학적·의학·간호학적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교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연구대학의 간호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인격이 성숙되어지기 보다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크게 증대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함께 4학년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의 표준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을 보면서(±10.66),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이 성장하지 않고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즉, 이 학교의 간호교육 과정이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성숙시키기 보다는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의사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홍성훈<sup>36)</sup>이 의과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결과를 볼 때에도 들었던 의문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문직의 지적 환경이 매우 보수적이고 교육형태 역시 인간의 생명과 안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한 치의 오차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하여 스스로 깨닫고 배우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기 보다는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모범적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미리 제시되고 이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외의 행동이나 판단은 엄격히 통제되어지는 도제식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이번엔 1회 실시된 횡단적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한 종단적 연구와 초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

33) McNeel SP. Moral Judgement at Christian Colleges. Unpublished manuscript. 1990

34) 홍성훈.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 의과대학의 도덕 판단력·민감성·행동선택을 중심으로 -.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35) McNeel SP. Moral Judgement at Christian Colleges. Unpublished manuscript. 1990

36) 홍성훈.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 의과대학의 도덕 판단력·민감성·행동선택을 중심으로 -.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1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도덕 판단력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들의 도덕 판단력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또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인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 지수는 평균 45.68(±13.65)로 대학생들 상대로하여 도덕 판단력을 측정한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슷하였다.
2.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은 성별, 연령, 형제·자매 수, 성장 시 가족형태, 월 평균 가구 소득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오직 종교에 의해 서면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천주교인들의 도덕 판단력이 무교, 불교, 기독교인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았다.
3. 간호학생들의 학년별 도덕 판단력은 3학년이 가장 높았고 4학년이 가장 낮았으나 이들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학년별 도덕 판단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연구대학 간호교육의 전인교육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도덕 판단력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그들의 도덕 판단력에 차이가 나는 인구학적 특성은 중

교뿐이었다. 또 학년이 올라가도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연구대학 간호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인격을 성숙시키거나 그들의 도덕적·윤리적 판단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베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DIT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간호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 본 연구는 지방의 1개 대학 간호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때문에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도덕판단 수준 및 양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인을 상대로 한 다양한 도덕판단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어져야 하겠다.
2. 간호 및 의료 전문직 교육과정의 전인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하겠다.
3. 전인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간호 및 의료 전문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준비된 교육자들에 의해 시도되어져야 하겠다. ■

**색인어** : 도덕 판단력, DIT 검사, 간호윤리, 교육과정

## A Study of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 Using DIT Test

LEE Mi-Aie\*, KIM Ik-Jung\*\*, HONG Sung-Hoon\*\*\*

We evaluated the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 using DIT test. The mean p value of the students was  $45.68(\pm 13.65)$ . And there was no p value difference between student group divided by demographical parameters such as gender, grade, age, family size, sibling and family income. The only parameter which showed difference was religion. Catholic students showed lower p value but this result could not be generalized because the group size of Catholic students were very small. The fact that grade showed no difference means that the curriculum of this school had no effect on students' whole person education. In conclusion, nursing school need to improve the curriculum to develop students' personalities which is needed in future nurse's ability.

○ **key words** : Moral judgment, DIT test, Personality development, Curriculum.

---

\*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School, Donggu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Medical School, Dongguk University

\*\*\* Department of Child Education, Yeosu College